

[종합·해설]

캐스팅보트 쥔 박근혜…정치권 촉각

18대 총선에서 최고의 소득을 얻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벌써 이명박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동반자적 관계 복원을 이야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총선 승리자는 한나라당 아닌 박근혜=박 전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당내 친박계 34명과 탈당파 친박계 25명 등 모두 59명을 원내에 진출시켰다.

이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국내 정치계에서 최대의 계파를 거느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현재 국민은 적어도 영남권에서는 이명박 정부를 견제 수단으로 야당이 아닌 박 전 대표를 택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탈당파의 복당에 대해 어떤 말을 할지 나아가 이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 등이 관심사다.

◇일단은 상황 주시=박 전 대표는 10일 대구 달성군 옥포면, 논공읍, 현풍면 등을 돌며 당선 인사를 했다. 또 친박연대로 출마해 대구 서구에서 당선된 홍사덕 전 의원을 비롯해 박종근 의원, 구상찬 특보 등 당 안팎 '친박' 당선자들의 잇따른 방문을 받고 환담을 했다.

'친박연대' 당선자 복당 여부 관심

박 전 대표는 주말까지 지역구에서 찾아오는 당 안팎의 친박 인사들과 만나 향후 행보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박 전 대표를 비롯해 대거 생활한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이 선결 과제로 내세우는 것은 복당 문제다. 박 전 대표의 7월 전당대회 당권 도전 여부도 복당 문제를 고리로 당내에 어떠한 역학 구도가 형성되는 지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친박 무소속 연대 당선자들과 친박연대 당선자 25명은 11일 대구 박 전 대표 지역구 사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10일 유세차량에 탑승해 당선사례를 하던 중 대구 달성군과 달서구의 경계에서 우연히 친박 무소속 이해봉 당선자와 조우하자 악수를 하며 당선을 축하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을 방문, 당선 인사와 함께 복당 문제를 포함한 향후 진로를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박 전 대표의 '당권론'과 관련해선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홍사덕, 서정원 등 원로 층근들은 '당권 도전'을 이미 여러 차례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또 다른 층근은 '장기적 정치의 관점에서 박 전 대표에게 도움이 되는지 여부도 그렇고, 어찌 됐든 당내 소수파로서 전대 도전이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과 관계 복원(?)=이처럼 박 전 대표의 위상이 강화되자 청와대와 한나라당 핵심 인사들 사이에는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국정의 동반자' 관계 복원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친이 층 핵심 의원은 "박 전 대표를 인정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면서 "민심을 그대로 받아들이 정치를 해야 한다. 오기를 부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일단,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친박 무소속 연대 당선자들과 친박연대 당선자 25명은 11일 대구 박 전 대표 지역구 사무

하지만, 그동안 문제가 터질 때마다 '갈등→봉합→갈등→폭'의 악순환을 거치면서 불신이 상당히 깊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 조치 없이는 동반자 관계 복원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7월 全大, 李-朴 관계복원 잣대 될 듯

때문에 두 사람간 동반자 관계 복원의 1차 관건은 탈당한 친박측 당선자들의 복당 문제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 내에서도 이 문제부터 자연스럽게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친박 인사들의 복당 문제와 함께 7월 전당대회 당권 문제도 양측간 관계 복원의 잣대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조기 회동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역시 국민들이 정치보다 앞서가"

與, 무소속 당선자 단계적 영입 추진

최대통령 "낮은 자세로 국민 섬겨야"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4·9 총선 결과와 관련,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를 지지한 국민여론이 과반의석을 만들었다"고 평가하면서 국민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각종 민생·개혁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이런 여건이 갖춰진 만큼 선진국가를 만들라는 국가적 목표를 향해 실질적으로 국정을 이행해 가는데 국회 쪽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쉽

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역시 국민이 정치보다 앞서가고 있다. 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면서 "국민을 낮은 자세로 섬겨야 하다는 점을 새삼 짚겠다. 겸허한 자세로 열심히 일하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이 바라는 일 가운데 쉽게 할 수 있는 일부부터 먼저 처리하라"면서 "이제 과반의석도 됐으니 가속도를 내서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5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추진할 법안이나 안건에 대한 담당 수석들의 보고에 이어 그에 대한 이 대통령의 관련 지시가 있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연합뉴스

"안정 과반의석 확보 필요" 판단

여권은 4·9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153석을 획득, 여대야소(與大野小) 국회를 이뤘지만 이명박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 추진을 위해 의회내 안정 과반의석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외부 무소속 당선자들의 단계적 영입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김광립(경북 안동), 강길부(울산 울주), 김세연(부산 금정) 당선자 등 친여 성향의 순수 무소속 당선자들이 우선적인 영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친박 무소속 당선자들의 경우도 선별적인 영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무성 의원을 비롯, 친박 무소속 연대 소

속 당선자들의 집단적인 일괄 복당 문제는 일단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당내 상황이나 정국,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박근혜 전 대표와의 화합 정치 등 명분이 충족될 경우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순수 무소속 후보들의 경우 입당을 하는데 전혀 거부감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입 대상으로 김광립, 강길부 당선자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김세연 당선자도 한나라당 최고위원, 전당대회 의장을 역임한 고(故) 김진태 의원의 아들인데다, 한승수 국무총리의 사위이기 때문에 1순위 영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

'양 날개' 꺾인 親李 항로는

〈이재오·이방호〉

이상득 중심 권력지도 재편

중진들 대거 당권 도전할 듯

한나라당 주류세력인 친이(친 이명박)계의 리더 역할을 해온 이재오 의원과 이방호 사무총장의 충격적인 낙선은 여권 권력 지도의 급속한 재편을 가져올 전망이다.

지난해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친이계의 좌장격이었던 이 의원과 '돌격대장' 역할을 맡아온 이 사무총장은 여권내 실세 중 실세. 따라서 이들의 부재는 여권내 '파워'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국회 부의장에게 급격히 쏠리는 현상을 가져오게 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 부의장은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는 한계로 인해 '상왕(上王) 정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행보 하나하나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 조심스러울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이 부의장은 걸으며 드러나는 역할 보다 '불밀' 조정자'로서 여권내 대소사를 관찰할 것으로 보이지만, 만일 문제를 생길 경우엔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는 점이 표적이 될 것 이란 점은 두고두고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차기 국회의장 누가 될까

한나라 중진 실세 전멸

정동준·김형오 등 거론

제18대 총선 결과가 드러남에 따라 차기 국회의장이 누가 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의장은 향후 원구성 협상을 통해 결정되겠지만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국회의장과 부의장 각각 1석 씩을 쟁기고, 제2당인 통합민주당이 나머지 부의장 1석을 가져가게 될 전망이다.

국회의장은 국회 관례상 최다선 의원이 맡아 입법부를 이끌게 된다. 이 경우 한나라당 소속 최다선 의원으로 이번에 6선 고지에 오른 이상득, 정동준 의원이 물망에 오른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점이 걸림돌이 되고, 정 의원은 이미 7월 당권도전에 이어 대권까지 꿈꾸고 있어 국회의장은 염두에

두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국회의장에 뜻을 품었던 강창희 전 의원이나 박희태 전 국회 부의장의 경우 당선되면 6선으로 유력한 후보군에 들어갔겠지만 여의도 입성에 실패, 꿈을 접어야 했다.

이에 따라 가장 강력한 후보는 이번에

5선이 된 김형오 의원. 김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을 지냈을 뿐 아니라 원내대표도 지내면서 원만히 대여관계를 조정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국회의장이 5선이 될 경우 부의장은 4선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 현재 4선이 되는 의원은 김영선, 박근혜, 안상수, 이윤성, 정의화, 흥준표, 황우여 의원 등이지만 대권을 꿈꾼다면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진다.

통합민주당에선 박상천, 김영진 의원(이상 5선)과 이미경, 이석현, 정세균, 천정배 의원(이상 4선) 등이 물망에 오르내린다.

/연합뉴스

제2회 함평라이너스 탁구 축제

4월 25일 개최! 함평라이너스 탁구 축제

1. 1부 대회 경기 (1부 대회 출전)
2. 풀집하우스 및 코스 헤드 체험
3. 시상식(퍼포먼스 공연)
4. 레스토랑 및 탁구 힐링 체험

■ 예약문의 : (061) 320-7700, 7714

함평 라이너스 탁구 축제